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뉴스
CHOSUN UNIVERSITY HOSPITAL NEWS

· **발행인 :** 문경래 · **편집인 :** 임동훈 · **기획편집 :** 조선대학교병원 홍보팀 · **홈페이지 :** http://hosp.chosun.ac.kr · **대표전화 :** (062) 220-3114 · **홍보팀 :** (062) 220-3288 / FAX 226-5882 **501-717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통권 제108호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외래진료센터 증축공사 기공식



조선대학교병원은 2015년 4월 2일 오후 2시에 강현욱 조선대학교 이사장, 서재홍 총장, 조선대학교병원 문경래 병원장, 정효성 조선의대동창회장, 보미종합건설 김덕영 회장 및 조선대학교병원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래진료센터 기공식을 진행하였다.

개원 44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병원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쾌적한 진료공간과 보다 편리한 서비스 동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7월말 완공 예정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다.

건평 7,046㎡(2,131평)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완공될 외래진료센터는 ▶ 지하 1~2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응급검사실 등 ▶ 지상 1~4층에는 현재 본관에 있는 당뇨센터, 내과,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응급병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경래 병원장은 "조선대학교병원은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지역 최고의 사립대학병원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상급종합병원,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내년 7월 외래진료센터가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 '네팔 긴급의료지원단' 급파

조선대학교병원은 지진 피해가 큰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긴급의료지원단 선발대 7명을 4월 28일 현지에 급파하였다. 이번 선발대에는 응급의학과 조수형 교수, 외과 유영선 교수, 정형외과 김웅희 교수를 중심으로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의 정예 의료진을 선발대로 구성하여 재난 현장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번 네팔 긴급의료지원단에는 (사)희망나무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유재신 광주시약사회장과 함께 광주시의 협력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네팔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긴급 의료 지원과 현지 재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추가적인 의료지원단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은 의료봉사단장인 문경래 병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빠른 의사결정으로 28일 오후 민항기편으로 태국을 경유하여 다음날 현지에 도착하여 긴급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문경래 병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의료 손길이 절박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봉사단원 모두의 무사귀환을 빌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에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하여 현재 캄보디아 초청 환자 3명을 무료로 수술을 하여 참된 인술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해외재난 현장에도 긴급의료지원단 파견은 물론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8월에는 몽골에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을 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해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의료사각지대에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펼칠 예정이다.



영양집중지원(NST, Nutrition Support Team)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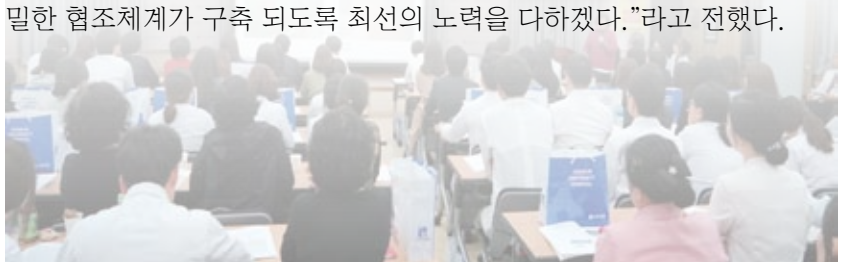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병원 영양팀 주최 영양집중지원팀(NST, Nutrition Support Team)은 3월 31일 하종현홀에서 '제1회 조선대학교병원 NST 영양집중지워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선대병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으로 입원환자의 영양관리 중요성에 관하여 알아보고 영양집중지원팀(NST)의 도입 필요성과 타병원 운영사례 및 조선대학교병원현황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영양집중지원팀은 의사와 약사,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하여 입원환자 영양결핍이 있거나 정상적인 영양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영양공급 평가 및 적정 영양요구량 산정, 합병증 관리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환자의 식사, 배변, 약물복용, 음식물의 섭취 평가, 영양치료의 부작용 관리, 환자의 영양학적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입원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 있다.

소금영 진료부장은 "영양집중지원팀을 통해 환자 치료에 있어 가장 적절한 영양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빠른 회복을 돕고 이러한 워크숍 자리를 통해 영양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료진과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종현 광주지방경찰청장 광주해바라기센터 방문



최종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2015년 피해자보호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3월 19일 조선대학교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였다.

최 청장은 광주해바라기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문경래 병원장(광주해바라기센터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 · 청소년 ·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위로하고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하였다.

문경래 병원장은 "피해자보호지원 및 예방교육을 위해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대 심리학부와 지역아동센터와의 긴밀한 공조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도 광주해바라기센터의 모범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요청 ·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을 통해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해바라기센터, 성폭력·아동학대 지원 의료기관 및 광주지방경찰청 합동 워크숍



조선대학교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문경래)가 3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하종현홀에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동 조사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 전담의료기관 6명(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외 4곳) ▲ 경찰청 20명(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등)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2명 ▲ 조선대병원 의료진 20명 등을 포함한 약 150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피해자 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의료지원교육, 성폭력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증거물 채취 방법과 처리 과정,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 체제 방안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특히 법의학적 증거채취와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 부분에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문경래 센터장은 "성폭력 등 피해자가 반복적인 피해사실 진술 및 신분노출로 인한 2차적 피해의 최소화를 항상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워크숍에 논의된 방안이 현실화되어 환자 심리적인 아픔까지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몽골국립의과대학병원 연수의사(전공의) 2차 교육프로그램 실시

몽골국립의과대학병원 전공의 3명이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여 3개월(2015.04.01 ~ 06.30일)간 선진 의료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세르겔렘(29세,남), 말탕졸(27세,남), 잔(26세,남)은 조선대학교병원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서 담당 교수의 지도아래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몽골국립의과대학병원과 교류협력체결을 통해 연수의사(전공의)를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1차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의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넘어 다양한 국적의 의료진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병원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4월17일(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에 선정되었다. 전국 시 · 도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공모에서 광주광역시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광주금연관리센터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금연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병원은 광주시, 5개 구 보건소, 금연유관단체 등 기존의 금연사업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단기 금연캠프를 운영하여 금연에 대한 인식과 금연 시도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조선대병원은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등을 비롯한 조선대병원의 최고의 의료진과 조선대학교의 임상심리학과 교수와 심리상담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담부터 진료, 처방,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에게 최고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문경래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의 광주금연관리센터 선정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며 “이번 사업을 위해 조선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광주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

“평가를 받기 위한 개혁이 아닌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통해 환자중심의 안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병원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이 3월 13일(금) 2층 하종현홀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환자 안전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적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서를 전달받고 중앙현관에서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열었다.

이 날 인증서 전달식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인증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선대병원의 환자중심 시스템과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와 공감을 표현하였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010년 처음 실시된 인증평가 때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의 인증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2019년까지 4년 동안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경래 병원장은 “인증평가를 통해 우리의 개선점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시스템개혁추진단을 통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혁하여 맞춤형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부 김영신 진료행정팀장 광주광역시장상 수상



조선대학교병원 진료부 김영신 진료행정팀장은 지난 3월2일 소외계층과 장애우를 위한 의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번 수상은 평소에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자세로 지역사회를 위해 2009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히 소외계층,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의료봉사 활동지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신 팀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클린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환기내과 장경식 교수 ‘영화 속의 생명이야기’ 개정판 출판





조선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장경식 교수는 2015년 ‘영화 속의 생명이야기’개정판(조선대학교 출판부)을 출판하였다. 영화를 통해 생명과 관련된 이해와 감독이 표현하고자 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의료인의 관점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 책은 일반 대학의 핵심교양과목으로 채택되어 인문학적 참고서로 사용되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에서 ‘의학과 문화 사회학’의 교재로 사용되며 학생들의 의학적인 사고 증진은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의료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를 소개하며, 의료전문가정신, 자율성과 책무성, 의사 헌장의 3가지 기본원칙 등 영화의 스토리와 연관 있는 의료진의 필수 덕목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영화를 통해 감성을 자극하고 즐거운 감동을 전하는 학습방법으로 의미 있는 토론을 양산하고 장기간 기억을 위한 기초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경식 교수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생을 조금 더 폭넓게 탐구하며 의사 – 환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며 “이 책을 통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여 정서적인 교감을 잘할 수 있는 인재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병원 해외환자 수술비 마련 행사

4월 9일(목) 12~18시까지 병원 동편 벚꽃 동산에서 해외초청 수술비 마련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이 지난 2월 3~8일 동안 캄보디아 캄퐁스퓨 광주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치료하였던 환자 중 현지시설, 장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검진과 수술이 불가능하였던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라우라(남, 8세), 락스메이(여, 9세), 바티(여, 19세)로 각각 심장중격결손, 손다지증, 손발기형 질환을 가지고 있다. 4월 22일 환자와 보호자 총 6명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캄보디아 환자 수술을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의료진인 성형외과 양정열 교수와 흉부외과 서홍주 교수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환자들의 회복 경과를 살피고 있다.

조선대병원 동편에 있는 벚꽃 동산에서 먹거리 장터, 바자회, 의료봉사 사진전, 전통차 시식, 케리커처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참여자들의 함박 웃음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이번 바자회는 조선대병원 전교직원이 참여하여 사용하지 않는 질 좋은 상품,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을 기부하여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시민들이 해외환자의 치료비 모금행사에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은 단순히 일회성 의료봉사활동에서 끝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봉사활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2차적인 활동을 통해 인술의 정신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환자의 완치를 위해 전교직원이 단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모범적인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해외초청환자 후원자 현황

교직원

강민구, 강민화, 강혜경, 국중이, 기근홍, 김경애, 김경혜, 김광준, 김금희, 김덕희, 김미경, 김미숙, 김미정, 김민수, 김민희, 김상훈, 김소영, 김수미, 김승곤, 김영관, 김정만, 김정신, 김진호, 김하정, 김해정, 김희숙, 노애숙, 노지숙, 마송이, 문경래, 문봉주, 문애란, 박경애, 박명희, 박미경, 박복진, 박상학, 박선주, 박선희, 박윤미, 박찬국, 박혜숙, 백혜선, 변희자, 서창심, 소금영, 송은숙, 송태근, 신병철, 신희숙, 안경숙, 안윤희, 안태훈, 오송희, 오재기, 윤선화, 이가영, 이경숙, 이귀숙, 이근조, 이병설, 이병주, 이연옥, 임수정, 임태환, 임혁희, 장혜영, 전영경, 정인희, 정정인, 정주현, 정주희, 정효선, 조인덕, 조정우, 조현옥, 지이화, 진남형, 진선경, 최경희, 최미경, 최 인, 추일한, 한정아 간호부, 기획팀, 백합회 여직원일동, 영양팀, 의료정보팀, 재무팀, 진료행정팀, 총무팀

외부 후원인

강성인(동신병원), 김공식(우리아동병원)
김구연(일반시민), 김명혜(일반시민)
김원태(케냐사장), 김윤신(의대기초)
김혜자(일반시민), 나지혜(의학전문원)
박성규(일반시민), 유기동(일반시민)
유창수(일반시민), 이광열(수피부과의원)
이기현(학생), 이정훈(일반시민)
장민경(의대학생), 정권율(정권율외과)
정득채(여천제일병원), 정승주(자원봉사자)
조국형(조정형외과), 조기창(자매의원)
최종석(일반시민), 홍성일(일반시민)




조선대학교병원 개원 44주년 기념행사

4월 15일(수) 개원 44주년을 맞이하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개원행사를 실시했다. 1부 개원기념식과 2부 교직원 화합 한마당으로 구성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내 · 외빈 인사들과 1,0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하였다.

개원기념식에는 ▲ 공로상 마취통증의학과 정종달 교수 외 14명 ▲ 협력사 공로상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외수 외 5명 ▲ 30년 근속상 진료비심사팀 유윤정 팀장 외 21명 ▲ 20년 근속상 신경과 김진호 교수 외 12명 ▲ 10년 근속상 내분비내과 김상용 교수 외 21명 ▲ 전공의 공로상 신경과 김만영 선생 외 13명 ▲ 모범상 병동간호1팀 이애경 선생 외 21명 ▲ 스마일교직원상 병동 간호1팀 김은화 선생 외 3명 등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병원 발전을 위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교직원 화합 한마당에서는 병원 각 부서에서 14개팀과 UCC동영상 11개팀이 참여하여 노래, 춤, 개그는 물론 판소리, 화선무, 구연동화, 패션쇼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직원 간에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즐거운 화합 한마당을 만들어 내었다.

이 날 문경래 병원장은 “병원의 숙원 사업이던 외래진료센터 증축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며 “교직원 화합 한마당을 통해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단합하여 더욱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남구의사회 '연수교육' 및 '진료협정 협약식'



조선대병원은 4월 9일(목) 조선대병원 신관2층 하종현홀에서 '남구 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평정2점)을 실시하고 서정성 남구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병원과의 신의료기술 및 의학정보에 대한 상호교류 등 다양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남구의사회' 와 '조선대병원' 상호간의 진료협정 협약식도 이루어졌다.



조선대병원 교육연구부와 대외협력실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교육은 조수아 탈북의사의 '북한 의료현실을 찾아가다', 조선대병원 외과 최남규 교수의 '장기이식의 최신지견' , 조선대병원 신경과 김후원 교수의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진단과 치료'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장 임동훈 교수의 '새로운 조선대병원 진료협력센터'를 주제로 개원의들의 환자 진료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경래 조선대병원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계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선대병원과 지역 병,의원 개원의들과 함께 MOU를 통해 신의료기술 및 의학정보 등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식목일행사 교직원 참여마당








조선대학교병원 '웰빙기능의학클리닉'개설

조선대학교병원은 광주 · 전남 최초로 웰빙기능의학클리닉을 4월 13일(월) 병원 신관 2층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개설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웰빙기능의학클리닉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세포영양밸런스, 장균형밸런스와 척추밸런스를 기능의학적 기초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전인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의 최대의 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 기능성 장질환은 물론 불면증, 비만, 노화관리, 중금속 해독, 혈관질환 개선 등 다양한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환자 개개인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 치료와 관리를 전인적인 측면에서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선대병원이 광주지역금연관리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가정의학과와 웰빙기능의학클리닉이 금연사업을 위한 전문클리닉 운영과 종합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진료를 통해 환자의 내원부터 퇴원까지 종합적인 일차 의료를 담당하여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한다"며 "조선대병원의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장비를 통해 급 · 만성질환(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노인질환부터 만성통증, 갱년기, 금연을 위한 진료까지 환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조선대학교병원 손위생 시상식

조선대학교병원은 4월 22일 하종현 홀에서 손위생 시상식을 열었다. 손위생 시상식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응급실, 외래, 검사실 등 환자와 대면하는 곳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없는 병원 모든 직원까지 손의 청결을 위해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흉부외과 **서홍주**



교육연구부 **박종선**



병동간호2팀 **문선자**



교육연구부 **문서주**



교육연구부 **김준형**



내과 **류영상**



병동간호2팀 **장서진**



간호행정팀 **박래환**

이번 손위생 시상식에는 총 8명의 직원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최우수상(3명) – 서홍주 교수(흉부외과), 박종선 인턴(교육연구부), 문선자 간호사(병동간호2팀)

▶ 우 수 상(5명) – 문서주 인턴(교육연구부), 김준형 인턴(교육연구부), 류영상 전공의(내과), 장서진 간호사(병동간호2팀), 박래환 선생(간호행정팀)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교수 동정(2015년 3월~4월)

1. 소아청소년과 김은영 3/3 ~ 3/9 2015 endo 학회 발표 및 참석, 미국
2. 병리과 홍란 3/4~3/7 2nd International Renal Pathology conference 참가, 일본
3. 내분비내과 소중해 3/4~3/10 2015 endo society in sandiego 참석 및 포스터 발표, 미국
4. 외과 김권천 3/16~3/22 14TH SG-BCC 2015 학회 포스터 발표, 오스트리아
5. 안과 김대현 3/23~3/27 미국 사시 소아안과 학회 포스터발표, 미국
6. 진단검사의학과 박건 4/13~4/19 국제알쯔하이머학회 참석, 호주
7. 신경과 안성환 4/15~4/20 유럽뇌졸중학회발표, 영국
8. 진단검사의학과 장숙진 4/23~4/29 25th ECCMID 학회 초록발표 출장, 덴마크
9. 이비인후과 조성일 4/30~5/4 10th Asia Pacific symposium on cochlear implants and Related Sciences 발표, 중국

교직원 동정(2015년 3월~4월)

3월 환영합니다(입사)

1. 간호부 / 병동간호2팀 – 정미애
2. 간호부 / 특수부서간호팀 – 권다연
3. 약제부 / 약무팀 – 강민화
4. 약제부 / 약무팀 – 강민구

4월 환영합니다(입사)

1. 간호부 / 병동간호1팀 – 최수정
2. 총무부 / 원무팀 – 윤선림
3. 기획실 / 의료정보팀 – 안성민
4. 간호부 / 병동간호1팀 – 방지민
5. 진료부 / 응급의료센터 – 남송화
6. 간호부 / 병동간호1팀 – 박가영
7. 간호부 / 병동간호1팀 – 김지영
8. 간호부 / 병동간호2팀 – 박보람

3월 수고하셨습니다(퇴사)

1. 약무팀 / 약사 – 임성용
2. 교육연구부 / 인턴 – 백성년
3. 신경과 / 전임의 – 강현구
4. 수술간호팀 / 간호사 – 황대연
5. 수술간호팀 / 간호사 – 신민정
6. 특수부서팀 / 간호사 – 이소연
7. 병동간호1팀 / 간호사 – 김인선

4월 수고하셨습니다(퇴사)

1. 특수부서팀 / 간호사 – 김희주
2. 특수부서팀 / 간호사 – 권다연
3. 교육연구부 / 인턴 – 백병원
4. 안과 / 전문의 – 최광주
5. 응급의학과 / 전문의 – 김동환
6. 약무팀 / 약사 – 오송희



◆ 임명장 수여식

3월 축하합니다(입사 / 보직임명)



왼쪽부터 간호사 정미애, 권다연, 약사 강민화, 병원장 문경래, 약사 강민구, 특수사업팀장 이성국

4월 축하합니다(입사 / 보직임명)



왼쪽부터 운전주임 이영석, 행정직원 안성민, 간호사 김지영, 박가영, 병원장 문경래, 간호사 남송화, 박보람, 방지민, 행정직원 윤선림

조선대병원 기부금 약정현황(2015.3.1~ 2015.4.21.)

(단위:원)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비 고
1	임상병리팀	장홍님	12,500,000	16,598,350	
2	재무팀	김은숙	500,000	4,027,820	
3	완도대성병원	전이양	10,000,000	10,000,000	의대12회동문

스마일 교직원 및 스마일 부서

조선대병원은 4월 15일 개원기념일에 스마일 직원 및 부서 시상식을 열었다. 스마일 직원 · 부서는 환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항상 밝은 미소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격월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일 교직원에는 외래간호팀 박시연, 병동간호1팀 김은화, 시설관리팀 김재혁 스마일 부서에는 진단방사선팀이 선정되어 표창장과 금일봉을 수여했다.

스마일직원



외래간호팀 **박시연**

스마일직원



병동간호1팀 **김은화**

스마일직원



시설관리팀 **김재혁**

스마일부서



진단방사선팀

흡연과 폐암







호흡기내과
윤성호 교수

벌써 새해가 시작되어 4개월이 흐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서 마음먹었던 약속 중에 운동, 금연, 금주가 있다. 금연에 대한 약속은 해마다 하고 또 쉽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대표적인 약속이 금연이라 하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금연을 시작하였으면 하면서 흡연에 대한 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흡연은 암 사망의 가장 중요한 단일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미국 내 남성 암 사망자의 약 30%가 이와 관련이 있다. 여성 암 사망의 10%도 흡연과 관련이 된다. 불행히도 여성에서의 사망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흡연의 증가로 여성의 폐암사망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을 앞지르고 있어 이미 위험수위가 넘어버렸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악성질환이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암 가운데서 발생율은 위암에 이어 두 번째 사망률은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아직도 폐암은 다른 암보다도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폐암 발생은 담배연기에 대한 폭로 정도와 비례하며,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10배 폐암 발생률이 높으며, 두 갑을 피우는 사람은 25배나 높다. 최근 여성의 흡연 인구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남자에서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를 끊은 후에는 폐암의 위험도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흡연은 폐암뿐 아니고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의 직접원인이 되며, 신장 암과 췌장암의 보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위암과 자궁경부암, 그리고 골수성 백혈병과도 연관이 있어 대부분의 암이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배연기의 2/3는 피우는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기 중으로 퍼지는데, 이를 환경적 담배연기라고 부르며,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연기의 많은 양을 흡수하고 대사시켜야 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환경적 담배연기에 폭로되는 비흡연가의 건강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간접흡연이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효과로는 비흡연 성인에서도 폐암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호흡기계를 손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흡연자 본인의 문제만이 아닌 동료와 가족 특히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에게는 건강을 헤 칠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되어 흡연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속적인 흡연은 호흡기계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도벽 점막하층의 점액분비선이 증식 및 증대, 배세포 증식으로 분비물 생산이 많아져서 객담배출이 증가한다. 이 결과로 기도의 내경이 좁아지며 기도 저항이 증가하게 되며, 기도점막에서 호흡기의 방어기전으로 가장 중요한 점액섬모운동을 방해하고 객담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이것이 세균감염의 배지역할을 하여 감염이 잘 일어나게 한다. 이러한 문제로 호흡기에 생기는 병으로는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악성종양이 있으며, 비감염성 염증질환, 혈관질환, 흉막 질환 등 모든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거나 더욱 악화시켜 폐암에 이르게 한다.

폐암의 치료법에는 주로 외과요법, 방사선치료, 항암제에 의한 치료 등이 있다. 외과요법은 폐암이 조기인 경우에 실시된다. 방사선요법은 X선이나 기타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 항암제에 의한 화학요법은 모든 병기의 소세포암, 일부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다.

흡연 시에는 기침, 객담, 호흡곤란, 천명음 등의 만성 호흡기 증상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많고 흡연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나 금연 시에는 이러한 증상이 즉각 호전된다. 금연을 하게 되면 폐 기능의 감소 속도가 비흡연자에서와 같은 정도로 회복되는데 폐 기능의 회복은 금연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수개월 후에 약 5%까지 회복되고, 완전한 회복에는 5년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금연을 하면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인자로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금연을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은 다시 금연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으나 한 번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1년에 5% 미만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금연 시도는 금연 성공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많은 활동 및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이 있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다양한 정보와 금연 보조약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약물요법 및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통해 금연성공을 높이고 있다.

금연에 실패한 것에 좌절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래도 어렵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오늘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금연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